

## 일반적 파시즘의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의문

- 파시즘은 민족주의인가? -\*

장문석\*\*

### 〈차 례〉

1. 들어가며: 파시즘의 정의
2. 민족주의와 혁명
3. 민족을 넘어 제국으로
4. 혁명, 전쟁, 대중
5. 나오며: 파시즘을 둘러싼 오해와 부재에 대하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반적 파시즘에 대한 그리핀의 유명한 정의를 의문에 붙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처럼 파시즘이 대중 정치에 기초한 혁명적 민족주의라는 종래의 정의에 의식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새

---

\* 이 논문은 2023년 6월 1일에 개최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 세미나에 함께하며 귀한 질문과 조언을 해주신 연구소 관계자들과 연구자들,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로운 생각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족주의의 성격을 검토하는데, 특히 홉스봄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민족주의가 최초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잇따라 그람시가 말했던 이른바 수동 혁명을 통해 민족국가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기제로 변형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파시즘을 민족주의로 간주하는 정의의 불충분함을 고려하면서 민족주의보다 상대적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 등이 파시즘을 규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끝으로, 파시즘을 일종의 수동 혁명으로 파악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파시즘의 역동성을 간과할지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근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면서 파시즘과 혁명/전쟁, 파시즘과 대중의 관계 등을 토의한다. 이 주제들은 오늘날 파시즘 연구의 주요 쟁점들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쟁점들에 천착함으로써 파시즘에 대한 전통적 정의들이 남긴 어떤 한계와 공백을 좀 더 명료하게 포착할 수 있다.

주제어: 이탈리아 파시즘, 일반적 파시즘, 민족주의, 수동 혁명,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혁명, 전쟁, 대중 정치

## 1. 들어가며: 파시즘의 정의

무릇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그것이 **알려져 있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오히려 인식되지 않은 것이다.<sup>1)</sup>

파시즘(fascism)은 다의적 용어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역사적으

1)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정신현상학 1』, 김준수 역, 파주: 아카넷, 2022, p. 30. 강조는 원문의 것.

로 실존한 이탈리아 파시즘을 가리킨다. 이탈리아는 파시즘이라는 말(fascismo)의 고향이며, 그런 만큼 파시즘은 개별적인 역사적 현상이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 파시즘은 고유명사로서 대문자(Fascism)로 표기된다. 그러나 파시즘은 보통명사로서 소문자(fascism)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때의 파시즘은 비단 이탈리아 파시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파시즘을 포함한 다양한 파시즘들이나 유사 파시즘들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종(種, genus)<sup>2)</sup>으로 간주된다. 바로 이것이 “일반적 파시즘(generic fascism)”이다. 이에 덧붙여, 기호학자 에코(Umberto Eco)가 제기하여 유명해진 “영원한 파시즘(eternal fascism)”이라는 것도 있다. 즉 파시즘은 일종의 은유(제유)로서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고 지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파시즘이라는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역사적(이탈리아) 파시즘과 일반적 파시즘, 영원한 파시즘이 그것이다.<sup>3)</sup>

오늘날 파시즘 연구(fascist studies/fascism studies)에서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일반적 파시즘이다. 하나의 종별적 범주로서 파시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는 그동안 파시즘 연구자들을 괴롭혀온 까다로운 문제였다. 연구자들마다 각기 파시

2) ‘genus’는 계, 문, 강, 목, 과, 속, 종에서 ‘속’에 해당한다. 종은 ‘species’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말에서 생경한 ‘속’보다는 좀 더 익숙한 ‘종’으로 옮기고자 한다.

3) 이런 식의 분류는 이탈리아의 저명한 파시즘 연구자인 젠틀레(Emilio Gentile)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젠틀레는 파시즘의 다의성을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 이탈리아 파시즘”과 “네오파시즘(neo-fascism)”, “일반적 파시즘”, “영원한 파시즘”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다. 물론 그는 자신이 “파시즘”을 언급할 때에는 언제나 “역사적 이탈리아 파시즘”을 가리키는 것임을 명시한다. 젠틀레에게 “일반적 파시즘”은 그 남용이 우려되는 용어이고, “영원한 파시즘”은 역사적 현상을 “이데올로기적 우상”으로 대체하는 오류를 내포하는 용어이다. Emilio Gentile, “Confronting Modernity: Italian Radical Nationalism in the 20th Century,” *Italian Americana* 15-1, 1997, p. 9.

즘의 정의가 달랐고, 개별적인 역사적 현상들 각각을 파시즘이라는 일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챗바퀴에서 돌과구를 마련한 것이 바로 놀테(Ernst Nolte)의 이른바 현상학적 방법이다. (현상학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한지를 논외로 한다면) 놀테에게 현상은 “스스로를 의식하는 사회적 사실”로서 그 자체 이데올로기를 갖는데, 현상학적 이해란 “현상들이 그 자신의 용어으로써 스스로를 보여주는바 그대로의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뜻했다.<sup>4)</sup> 이런 방법은 파시즘을 여타의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독자적 이데올로기로 간주함으로써 파시스트들 자신의 말로써 파시즘을 이해할 수 있는, 파시즘 연구의 새로운 길을 터주었다.

이 새로운 길에서 가장 앞서나간 연구자가 영국 정치학자 그리핀(Roger Griffin)이다. 그는 파시스트들이 생산한 수많은 문헌들을 섭렵했다고 자부하면서 독자적 이데올로기로써 파시즘의 일반적 정의를 과감하게 도출했다. 파시즘에 대한 그의 정의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치즘과 같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파시즘들에 기초하되, 개별적 특성들에 매몰되지 않고 그 공통된 일반적 특징들을 추출하여 정립한 이념형이다. 그의 정의는 이념형인 만큼 역사

4) Martin Kitchen, *Fascism*, Basingstoke: Macmillan, 1976, p. 40[마아틴 키친, 『파시즘』, 강명세 역, 서울: 이론과실천, 1988, p. 64]. 이와 같은 일종의 자기 기술의 방법은 놀테 이후 유력한 파시즘 연구법으로 등장했는데, 틀림없이 스피노자(Spinoza)의 『에티카』에 나오는 제2공리, 즉 “다른 것에 의하여 파악될 수 없는 것은 그 자신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리를 떠올리게 한다. 자기 기술의 방법은 독일 사회학자 루만(Niklas Luhmann)에 의해서도 채택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피노자의 공리가 루만의 노작 『사회의 사회』의 제사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파시즘과 관련해서는 스피노자의 공리를 뒤집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통해 파악될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확실히, 이 방법의 문제는 파시즘 연구의 근본적 쟁점으로 잠복해있다. B. 스피노자, 『에티카』, 강영계 역, 서광사, 2007, p. 21; 니콜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장춘익 역, 새물결, 2012.

적 현상들과 꼭 일치하지 않지만, 복잡하고 혼종적인 역사적 현상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준거로서 유용하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리핀의 정의를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의 정의는 학계 안팎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이에 고무된 그리핀은 자신의 이론이 파시즘 연구에서 “새로운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고, 심지어 “새로운 합의 학파”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통용되었다.

그렇다면 파시즘에 대한 그리핀의 정의는 무엇인가? 내용은 같되, 짧은 정의와 긴 정의가 있다. 먼저 파시즘에 대한 짧은 정의를 보면, 그리핀에게 파시즘은 “그 신화적 핵심이 다양하게 변주되지만 기본적으로 민족 부활(palingenetic)이라는 형태를 띤 일종의 포폴리즘적인 극민족주의(ultra-nationalism)”이다.<sup>5)</sup> 이 정의는 그리핀의 출세작이라고 할 『파시즘의 본성』에 나오는 정의로서, 파시즘의 ‘본성(nature)’ 또는 ‘본질(essence)’에 대한 집요한 탐구와 그로부터 요약된 간결한 정의를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내용은 이 정의와 다르지 않되, 좀 더 상세하고 풍부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파시즘은 그 사회적 지지 기반과 다양하게 변주된 특정한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극도로 이질적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민족이 쇠퇴하고 타락한다고 간주되는 한 시기가 길을 내주고 탈자 유주의적인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재생과 갱생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중핵 신화로부터 내적 응집성과 추동력을 끌어내는, 일종의 근대적이고 혁명적인 ‘대중’ 정치이다.”<sup>6)</sup> 이 정의가 수록된 『인터내셔널 파시즘』의 편저자로서 그리핀은 거침없이 자신의 정의가 학계에서 “상식”이 되었고,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선언했다.

5) Roger Griffin, *The Nature of Fascism*, New York: Routledge, 1991, p. 26.

6) Roger Griffin, “Introduction,” *International Fascism: Theories, Causes and the New Consensus*, London: Arnold, 1998, p. 14.

이 두 정의에서 핵심은 파시즘이 **대중 정치에 기초한 민족 재생의 요구로서 혁명적 국민족주의**라는 것이다. 펠드먼(Matthew Feldman)에 따르면, 그리핀의 이론은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그리핀 덕분에 우리는 파시즘을 민족적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인식을 가로막던 일체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여 파시즘에 대한 순수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핀은 펠드먼과 함께 작업한 파시즘의 개념사 저작에서 파시즘을 재차 “정치 문화와 이를 떠받치는 사회·윤리 문화 모두의 재생(부활)과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민족 재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타락’의 맹습에 맞서 일체의 ‘건강한’ 사회적·정치적 에너지를 동원하는 데 열중하는 **혁명적 형태의 민족주의**”로 정의했다.<sup>7)</sup>

물론 그리핀과 ‘그리핀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날 파시즘 연구에서 그리핀의 정의와 이론이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적어도 한때 그런 합의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결코 그런 합의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러기는커녕 외려 그의 일반적 파시즘론은 다양한 방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가령 파시즘을 이데올로기로 규정함으로써 파시즘의 이념과 현실,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외면하고 있다든지, 또는 파시즘의 ‘본성’과 ‘본질’에 집착함으로써 파시즘이 발현한 다양한 구체적·역사적 형태들을 간과하고 있다든지 하는 비판들이 그것이다. 나아가 파시즘을 독자적이거나 종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파시스트와 보수우파의 연속성을 놓칠 뿐만 아니라 파시즘과 다양한 유사 파시즘들 사이의 공통점

7) Roger Griffin, with Matthew Feldman, eds., *Fascism: Critical Concepts*, 5 vols., London: Routledge, 2004, vol. 1, p. 6. 또한 Matthew Feldman, “Editorial Introduction by Matthew Feldman,” Matthew Feldman, ed., *A Fascist Century: Essays by Roger Griffi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8, p. xii을 보라. 강조는 인용자의 것.

들만큼이나 엄존하는 차이점들을 무시한다는 비판도 유력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판들의 파도를 타고 오늘날의 파시즘 연구에서는 일반적 파시즘보다 다양한 파시즘들과 유사 파시즘들, 권위주의 체제들 및 운동들 사이의 국경을 횡단하는 모방과 전이, 전유와 상호작용을 통해 그 얽힘과 혼종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이른바 트랜스내셔널 파시즘(transnational fascism)의 문제의식이 부각되고 있다.<sup>8)</sup>

그럼에도 트랜스내셔널 파시즘 연구자들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리핀의 일반적 파시즘론에 기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핀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파시즘이 극단적이고 혁명적인 형태의 포퓰리즘적인 민족주의라는 정의는 유의미한 준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그리핀의 정의가 파시즘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출발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족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으로서의 파시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보완하는 이론적 도구로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다. 사실, 이것이 파시즘 연구에 대한 그리핀의 결정적인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리핀의 정의와 이론은, 비록 자신의 “합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합의”가 결정적으로 균열되고 말았지만, 여전히 학계 바깥에서는 상식적 견해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다시 말해, 일반의 통념에서 파시즘이 극단적이고 혁명적인 형태의 포퓰리즘적인 민족주의로서 독자

8) 이른바 ‘그리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António Costa Pinto, *The Nature of Fascism Revisit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idem, ed., *Rethinking the Nature of Fascism: Comparative Perspectiv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1; Martin Blinkhorn, *Fascism and the Right in Europe 1919-1945*,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0; 장문석, 「트랜스내셔널 파시즘으로 가는 길목에서: 파시즘 비교 연구의 최근 동향」, 『서양사론』 145, 2020.

성을 갖는 이데올로기라는 생각은 엄밀한 검증 없이 두루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를 보며 쉬이 파시즘을 떠올리는 경향이 그 점을 입증해주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그리핀의 일반적 파시즘론은 학계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더 유력한 “합의”를 끌어내고 있는 듯하다.

## 2. 민족주의와 혁명

그리핀의 정의에서 보듯이 파시즘이 민족주의의 한 형태라는 것은 학계 안팎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상식과 통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글의 제사에서도 인용했듯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잘 인식된 것은 아니라는 철학자의 지혜를 상기하면, 그런 상식과 통념에 큼직한 의문부호를 붙여봄 직하다. 파시즘은 민족주의인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것은 파시즘이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확고하게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파시즘이 민족주의라는 종래의 바윗돌 같은 확실성에 작은 틈새를 내어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나마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의문은 일종의 방법적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의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주의의 성격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난점은 파시즘의 정체를 두고도 극도로 다양한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듯이 민족주의 연구의 사정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무릇 민족주의에 대한 합의된 견해란 없으며, 민족주의의 정체는 오직 가설로만 제시되고 갑론을박되며 감정적으로만 수용된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유력하게 인정되는 몇 가지 명제들—물론 이 명제들에 대해서도 각기 반론이 있음은 분명하다—을 검토하면서 민족주의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하게는 파시즘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산적 **가설들**을 제시해봄으로써 앞서의 의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할 수 있다.

출발점은 민족주의가 이중 혁명의 산물이라는 명제이다. 이중 혁명이라는 용어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인 홉스봄(Eric Hobsbawm)이 처음 사용하여 널리 확산되었는데, 민족주의에 대한 홉스봄의 입론도 이 용어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많은 역사가들이 민족주의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삼는 것도 민족주의가 이중 혁명의 산물이라는 명제의 영향력을 확인해 준다. 홉스봄의 민족주의론을 편집한 서순(Donald Sassoon)도 이 명제에서 시작한다. 즉 민족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충격 속에서 나타났고, 그런 점에서 “통상 민족주의가 민족에 선행하며,” 최소한 19세기 중엽 시점의 유럽에서 민족주의는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민주적이고 심지어 혁명적”이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체코나 폴란드나 핀란드, 또는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들은 모종의 고대 군주정이나 원시적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sup>9)</sup> 그들이 원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상태였다. 과연 홉스봄 자신도 『자본의 시대』에서 하나의 강령으로서 민족주의란 “민족국가가 아닌 것에서 민족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소망”으로서 그 자체 “프랑스 혁명의 산물”로 보고, 민족의 ‘역사적’ 기준에서는 엘리트의 제도와 문화가 중요하지만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기준에서는 그와 달리 “훨씬 더 급진적이고 민족적·혁명적인 내용의 것들”이었다고 주장했다.<sup>10)</sup> 적어도 원리상 민족주의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었

9) Donald Sassoon, “Introduction,” Eric Hobsbawm, *On Nationalism*, London: Little, Brown, 2021, pp. xi, xiii.

10) 에릭 홉스봄, 『자본의 시대』, 정도영 역, 서울: 한길사, 1998, pp. 201-202. 번역서에는 ‘국민국가’로 되어 있으나 일관성을 위해 ‘민족국가’로 고쳐 썼음을 밝힌다.

다는 말이다. 이를 술체(Hagen Schulze)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그 권위가 전체 민족에서 유래하는 국가라는 이념 자체는 **단연코** 혁명적 원리였다.”<sup>11)</sup>

기실, 홉스봄의 견해는 많은 역사 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된다. 가령 유럽 민족주의의 역사를 빼어나게 요약하여 기술한 최근의 한 연구서에서 헤이스팅스(Derek Hastings)는, 프랑스에서 국왕의 죽음을 알렸던 의례적 구호인 “국왕이 서거했다. 국왕 만세!”가 혁명기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국왕의 머리를 치켜들고 터뜨린 일성인 “민족 만세!”로 바뀐 극적인 사건을 부각하면서 이를 의미심장한 담론적 변화로 파악한다. 아닌 게 아니라 “민족 만세!”라는 구호와 더불어 비요바렌(Jacques Nicolas Billaud-Varenne)의 결연한 주장이었던 “썩은 사지”는 절단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침내 실현되었는데, 그 외과 수술과 같은 절단의 고통스러운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sup>12)</sup> 이런 사실은 가령 민족이 전근대 시대 종족(ethnie/ethnicity)의 자연적 연속이라는 생각에 도전한다. 나중에 민족주의가 과거와의 연속성을 열심히 복원하겠지만, 민족은 완벽히 자연스러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봉합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 터, 제아무리 봉합이 정교하더라도 봉합 자체를 숨길 수는 없다. 꿰맨 자국은 남는 법이다.<sup>13)</sup>

11) Hagen Schulze, *States, Nations and Nationalism: From the Middle Ages to the Present*, tr. William E. Yuill, Oxford: Blackwell, 1996, p. 198. 강조는 원문의 것.

12) Derek Hastings, *Nationalism in Modern Europe: Politics, Identity, and Belonging since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8, p. 30. 또한 장문석, 「민족주의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 대안일 수 있는가?: 두 가지 민족주의 옹호론에 대한 비평」, 『서양사론』 154, 2022, pp. 355-356을 참조하라.

13) 사실, 종족과 민족의 연속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종족과 민족의 연속성은 후대의 관찰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사

이와 관련하여 홉스봄은 민족이 완전히 무에서 발명되었다기보다는 선행하는 다양한 역사적 질료들로부터 구성되고 발전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런 질료들, 즉 영토와 언어, 역사, 문화, 심지어 종족적 통일성 등의 개념들이 과거 유럽의 15세기에도 오늘날 20세기와 똑같은 것을 의미할 턱이 없고, 도리어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며, 서로 연관되어있지 않았음을 힘주어 강조한다. 특히 민족적 정체성이 (과거에는 무리 없이 공존하던) 다른 복수의 정체성들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우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토 국가와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은, 전근대 종족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민족의 **새로움**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도 종족과 민족의 연속성을 가정하는 것은 안이한 시각일 것이다. 새롭고 근대적인 현상으로서 민족의 등장은 필시 역사적 불연속성을 암시하는 것이다.<sup>14)</sup>

이렇게 보면, 민족 건설(nation building)은 연속이 아니라 단절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실상 많은 민족주의 연구자들의 가정과는 대립한다. 그 가정에 따르면, 요리에서 중요한 것은 셰프와 그의 레시피가 아니라 식재료 자체이다. 식재료가 종

---

후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의심해 볼 만하다. 여기에는 어떤 은밀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종족과 민족의 연속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과거 종족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민족의 선조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눈을 굴리며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시대착오의 가능성이 민족의 종족적 기원을 강조하는 영속론(perennialism)이나 스미스(Anthony D. Smith)류의 상징론(symbolism)이 갖는 약점일 수 있다. 즉 영속론과 상징론에 대해서는 발명된 민족에 발명된 종족을 덧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 ‘발명의 발명’이나 ‘이중의 발명’은 민족을 자연적 현상으로 보이게 하려는 힘겨운 노력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장문석, 「민족주의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 대안일 수 있는가?」, pp. 353-356을 참조하라.

14) Eric Hobsbawm, “Defining Nationalism: The Problems,” idem, *On Nationalism*, pp. 184-185.

아야 일품요리가 탄생한다는 식이다. 예컨대 최근 민족주의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곤 하는 비머(Andreas Wimmer)는 왜 어떤 나라는 민족 건설에 성공하고 다른 나라는 실패하는지를 검토하면서 세 가지 기제를 제시하는데, 자발적 조직들의 활력과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 공유된 언어의 동질성이 그것이다. 이 요인들은 모두 민족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장기적인 힘들인 바, 대부분 민족 건설 이전에 구비되어있는 사회와 정치, 문화의 특정한 전통들과 연관되어있다. 질료가 좋아야 완성품도 근사해지듯이, 적합한 전통들이 있어야 민족 건설도 성공적이라는 말이다.<sup>15)</sup> 그러나 민족 건설이 과거의 연장보다는 새로운 구성 과정이라는 홉스봄의 견해에서 보면, 자발적 결사나 중앙 집권적 관료제와 같은 전통들의 존재가 민족 건설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전통들을 타파하고 해체할 때 민족 건설은 효과적으로 완수된다고 말해야 한다.

이상으로부터 홉스봄의 논변에 숨어있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을 부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논점은 민족주의가 과거와 단절하는 (단절적이라는 점에서 혁명적인) 힘이었다는 것이다. 홉스봄은 널리 읽히는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에서 프랑스 혁명기 애국자들을 거론하면서 그 점을 강조한다. 이 애국자들은 “개혁이나 혁명을 통해 조국(country)을 갱신하려는 희망으로 조국애를 보여준 사람들”이고, “그들이 충성을 바친 ‘조국(patrie)’은 실존하는, 이미 존재하는 단위의 정반대로서 구성원들의 정치적 선택으로 창출된 민족(nation)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전의 충성심과 단절하거나 최소한 예전의 충성도를 희석시켰다.”<sup>16)</sup>

15) Andreas Wimmer, *Nation Building: Why Some Countries Come Together While Others Fall Apar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pp. 1-22.

16) Eric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그리하여 1789년에 랑그독과 도피네, 프로방스 출신의 국민방위대원들은 민족과 법률, 국왕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이 더 이상 랑그독인이나 도피네인, 프로방스인이 아님을 선언했다. 또한 1790년에 알사스와 로렌, 프랑슈콩테의 국민방위대원들도 이와 똑같이 맹세했는데, 그럼으로써 불과 100년 전에 프랑스에 병합된 지역들의 거주민이었던 알사스인과 로렌인, 프랑슈콩테인은 돌이 금이 되는 연금술처럼 **진정한 프랑스인들**로 바뀌었던 것이다.<sup>17)</sup>

흥미롭게도, 독일 철학자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전기를 쓴 핀카드(Terry Pinkard)도 그와 같은 홉스봄의 관점을 예리하게 포착해냈다. 그에 따르면, 1796-97년의 독일 지역들에 대해서도 홉스봄의 통찰은 유효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컨대 “슈바벤 애국자”는 단지 예전 국가나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혁이나 혁명을 통해 완전히 갱신된, 말하자면 “뉘르템베르크 공화국”을 세우려는 뜻을 품은 혁명 세력에 속한다는 것이다. 핀카드에 따르면, 헤겔 자신도 그런 견해를 공유했는데, 당시 독일인들을 “원형적인” 민족으로 추켜세우며 고대의 “독일적인 것”에 심취한 사람들을 비유했다고 한다. 헤겔의 눈에 <니벨룽겐의 노래>로 상징되는 “독일적인 것”에 대한 찬양은 “독일적인 어리석음”으로 비쳤다. 그러니까 헤겔에게 민족은 **새롭고 현재적인** 것이었고, 고대에서 민족을 찾으려는 시도는 허구를 쫓는 어리석은 것이었다.<sup>18)</sup>

독일과 헤겔의 사례는 두 번째 논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민족

---

*Reality*,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87[E. J. 홉스봄,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역,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p. 119].

17)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p. 87.

18) 테리 핀카드, 『헤겔』, 전대호·태경섭 역, 서울: 길, 2015, pp. 102, 105, 499. 또한 p. 867의 각주 61번도 보라.

주의가 민족에 선행하는 혁명적 이데올로기로서 역사에 등장했음이 사실이라든가, 많은 경우에 민족주의는 그와 달리 과거에서 민족을 찾으며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부각하고 국가의 혁명적 전복보다는 국가의 강화와 정당화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홉스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민족주의의 등장과 민족국가의 창출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sup>19)</sup> 홉스봄의 해설가인 서순도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이 이데올로기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 즉 ‘민족국가’라고 할 하나의 국가의 건설에 동원되는 방식들”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 민족국가 건설에 동원된 민족주의는 예컨대 1915년에 이탈리아 군대에 징집된 한 시칠리아 농부의 부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형상에서 잘 드러난다. 이 시칠리아 촌뜨기는 자신이 이탈리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시칠리아 사투리를 쓰는데, 어색한 이탈리아 군복을 입고서 피에몬테 출신 장교에게 이탈리아어(토스카나어에서 유래한 표준어)로 명령을 받아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알프스 산악 지대에서 오스트리아 병사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sup>20)</sup> 이렇듯 위로부터의 민족적 획일화에 동원된 민족주의는 원래의 급진적·혁명적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혁명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민족국가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서순은 민족주의 특유의 “적응성”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차르 러시아에서 반동적이고 반근대적인 친슬라브주의 이념으로 변할 수도 있고,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목표를 지닌 혁명적 애국자의 이념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말이다.<sup>21)</sup> 그러나

19) 홉스봄, 『자본의 시대』, p. 201.

20) Sassoon, “Introduction,” p. xiv.

21) Sassoon, “Introduction,” p. xii.

“적응성”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까? 민족주의의 적응력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힘**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법하다. 즉 민족주의가 민중과 지식인들에게 뺏아낸 힘은 지배 엘리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보였고, 그런 힘을 실감한 엘리트들은 민족주의를 전유하거나 중립화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유명한 개념을 빌려 민족주의에 대한 “수동 혁명(passive revolution)”이나 “복고-혁명(restaurazione-rivoluzion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개념들은 능동 혁명이나 민중 봉기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수를 쳐서’ 아래로부터의 요구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조금만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온존·강화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럼으로써 혁명은 수동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이다.<sup>22)</sup> 민족국가 건설에 동원된 민족주의가 혁명적 민족주의에 대한 수동 혁명이라는 것은 정확히 그런 의미에서이다. 그리고 수동 혁명은 과거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을 추구하게끔 민족주의를 인도했을 것이다.

그람시가 19세기 이탈리아의 민족 부흥 운동인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를 수동 혁명의 과정으로 분석한 것은 유명하다. 카부르(Camillo Benso di Cavour)로 대표되는 온건파가 마치니(Giuseppe Mazzini)나 가리발디(Giuseppe Garibaldi) 등의 급진파를 “분자적으로 흡수”하여 통일 운동의 주도권을 줌으로써 리소르지멘토의 민주적·혁명적 성격을 탈각시키는 방식으로 통일의 과업을 완수했다는 것이다. 이런 수동 혁명의 도식은 19세기 독일 통일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자신이 처음 사용한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지금도 역사 용어로 종종 쓰이는 말이 수동 혁명의 문제의식과 발상을 고스란히 표

22) “수동 혁명”이나 “복고-혁명”은 그 자체 많은 토론이 필요한 개념이다. 장문석, 「안토니오 그람시와 파시즘의 은유들: 그람시의 파시즘 해석과 그 현재적 함의」, 『역사학보』 246, 2020, pp. 213-216을 참조하라.

현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동 혁명의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더 이상의 혁명적 잠재성을 잃어버리고, 국가 형성이나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옹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보기에 따라 민족주의의 변질이나 변용, 또는 민족주의의 확장이나 풍부화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중엽 이후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은 민족주의에 대한 수동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기점이었고, 이로부터 민족주의는 데모스(demos)에 토대를 둔 시민적·해방적 색채를 잃고, 점차 에트노스(ethnos)에 기초한 억압적·반동적 성격의 이데올로기로 변형되고 있었다.<sup>23)</sup> 그렇기는 해도 여전히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은 당대 유럽에서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이 점이 중요한데, 잘 알려져 있듯이, 1815년 이후 빈 체제의 보수적 엘리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혁명의 발발과 나폴레옹의 출현을 막으려고 했고, 당대에 확산된 민족체의 이념을 기성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환상으로 여겼다. 빈 체제의 축조자 메테르니히(Klemens von Metternich)에게 이탈리아는 “지리상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고, 그의 고문 겐츠(Friedrich von Gentz)에게 독일 통일은 “미친 자들만이 추구할 목표”에 불과했다. 그러니 지도상

23) 민족주의 연구에서 한때를 풍미했고, 또 지금도 통용되는 **서유럽형** 민족주의와 **동유럽형** 민족주의라는 유형 구분의 뿌리도 여기에 있다.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논자들은 그런 유형 구분의 편향성(서유럽 중심주의)을 지적하면서 민족주의 자체에 데모스와 에트노스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본원적으로 내재한다고 가정해왔다. 장문석, 『민족주의 길들이기: 로마 몰락에서 유럽 통합까지 다시 쓰는 민족주의의 역사』, 지식의풍경, 2007, pp. 61-63. 그러나 이런 **분석적** 고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데모스와 에트노스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혁명과 개혁, 수동 혁명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접합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단절적·혁명적 힘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수동 혁명의 과정은 물론 이요, 서유럽과는 다른 환경의 동유럽에서 민족주의의 적응 및 변형의 과정이 민족주의의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순적인 성격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에 존재하지 않던 이탈리아와 독일 국가의 창설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보였겠는가! 비록 이탈리아 통일이 피에몬테 군주정의 주도로 왕조적 정복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에도 군주정은 온건 좌파인 민족협회(Società Nazionale)와의 타협을 통해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확산했고, 더군다나 가리발디로 대표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민족주의가 군주정이 저 홀로 이루지 못했을 통일을 가능하게 한 나머지 절반의 힘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탈리아 통일보다 보수적 색채가 더 짙었던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은 철과 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주의 언론들과 대중 민족주의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영국의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가 독일 통일이 “독일 혁명”이며, “이전 세기 프랑스 혁명보다 더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평가한 것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들린다.<sup>24)</sup>

### 3. 민족을 넘어 제국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할 때, 독자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파시즘을 민족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잘못된 것이거나, 적어도 불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슨 뜻인가? 민족주의가 프랑스 혁명의 산물로서 급진적이고 민주적이며 혁명적인 힘이라고 할 때, 파시즘에는 그런 민족주의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잘못일지 모른다는 말이다. 또한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산업 혁명과 더불어 노동계급이 등장하고 사회 갈등이 확산하는 국면에서 수동 혁명을 통해 변형되고 확장된 민족주의가 파시즘에 적용될 수 있더라도, 이때의 민족주의는 그리핀의 정의에

24) Schulze, *States, Nations and Nationalism*, pp. 197, 215, 228–230.

서처럼 급진적이거나 혁명적인 형태일 수 없고 보수적이거나 반동적으로 전유된 이데올로기로 보인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파시스트 이데올로기를 민족주의로 정의할 때에는 이 민족주의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반드시 보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파시즘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충분한 것도 아닌, 그 자체 텅 빈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텅 비었다는 것은 그 규정이 어떤 긍정적 내용을 채워주지 않거나 중의적이고 심지어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원적 모호함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이 점은 흔히 이탈리아 파시즘의 기원으로 간주되곤 하는 이른바 “급진적 민족주의(radical nationalism)”의 사례를 보면 쉬이 이해할 수 있다. 파시즘 연구의 권위자인 이탈리아 역사학자 젠틀레(Emilio Gentile)에 따르면, 급진적 민족주의는 민족을 정신적 현상으로 보면서 민족의 우위를 내세우고 근대성의 도전에 직면하여 민족국가의 권위를 통해 근대화 과정을 장악하려는 열망에 심취한 이탈리아 중간 계급 출신 아방가르드 지식인들의 운동이었다. 이들은 『레오나르도(Leonardo)』나 『목소리(La Voce)』와 같은 동인지들에서 활동한 모더니스트 문학가들과 미래주의자들, 또는 혁명적 생디칼리스트들이었다. 이들은 민족을 통합하는 신화나 신념과 같은 정신적 힘을 믿었고, 세계에 대한 이탈리아의 문명화 사명을 확신했다. 필경 파시즘은 그런 급진적 민족주의로부터 많은 요소들을 차용했다. 파시즘도 전체주의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제식들과 상징들에 기초한 “정치적 신성화(sacralization of politics)”를 통해 개인과 대중을 신비주의적인 전체주의 공동체에 포섭하려고 했다.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문화” 등의 수사들이 전체주의적 목표를 대중들에게 호소하는 데 동원되었다. 그럼에도 급진적 민족주의는 파시즘뿐만 아니라 반파시즘에도 자양분을 제공했는데, 가령 급진적 민족주의자로서 반파시즘을 대표하는 아멘돌라(Giovanni Amendola)는 시민적 자유와 책임에 기초하여 자유민주

주의와 대중 사회가 새로운 국가의 틀 속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sup>25)</sup> 그렇다면 급진적 민족주의는 파시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파시즘은 많은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의 기대에 **미달**하는 것이었다. 파시스트들은 대중 선전과 민중 문화를 장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전체주의적 문화 혁명의 수사를 분주하게 구사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충분히 깨닫지는 못한 것 같다. 그리하여 파시즘의 문화 혁명을 연구한 칸니스트라로(Philip V. Cannistraro)는 파시즘이 ‘전체주의’라는 표제어를 앞세워 실제로 한 일이라고는 문화 기구들을 행정적으로 중앙에 집중시킨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냉소적으로 평가한다. 나아가 파시스트 체제의 문화 기구들이 창출한 이탈리아의 초상도 이데올로그들이 가정한 것처럼 그다지 혁명적이지 않았다. 문화 기구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적 목표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각각의 이미지와 담론을 만들어 냈을 따름이다. 요컨대 칸니스트라로에 따르면, “문화 선전에 대한 그런 접근은 딱히 전체주의적이지도, 파시스트적이지도 않았다. 최종 분석에서 무솔리니의 문화 혁명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파시즘의 수사학적 틀에 끼워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재형성한 것을 대표했다”.<sup>26)</sup> 그러나 정작 파시즘에서 더 위대한 이탈리아의 부활을 기대한 오포(C. E. Oppo)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그런 파시즘의 남루한 현실에 좌절하여 자신이 민족주의 저널인 『민족 이념(L'Idée Nationale)』에서 파시스트 저널인 『연단(La Tribuna)』으로 옮긴 것을 후회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어쨌거나 민족 이념은 죽었고, 우리 모두는 연단으로 진군했네. 멜랑콜리한 진군

25) Gentile, “Confronting Modernity,” pp. 9–13.

26) Philip V. Cannistraro, “Mussolini’s Cultural Revolution: Fascist or Nationalist?”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7–3, 1972, pp. 136, 139.

이지. 젊음이여 안녕!”<sup>27)</sup>

이 대목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의 논의가 파시즘은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으리라. 대부분의 경우에 파시즘을 민족주의라고 규정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파시즘이 민족주의라고 해도, 이 규정이 말해주는 바는 별로 없다. 재차 강조하거니와, 그런 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거나, 공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 이외에 파시즘을 특별히 ‘전체주의적인’ 또는 ‘파시스트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다른 요소들에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체주의의 기원을 민족주의가 아니라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에서 찾았던 아렌트(Hannah Arendt)의 오래된 통찰이 도움이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아렌트는 **민족의 원리와 인종 및 제국의 원리**가 다르다는 점을 당대의 정치이론가 마르비츠(Ludwig von der Marwitz)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며 강조했다. “자신의 국경을 팽창시키고자 하는 자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전체 유럽 공화국 사이에서 불충한 배신자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 아렌트에 따르면, 마르비츠는 민족들이 물리적 차이가 아니라 정신적 차이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렇게 비판할 때의 마르비츠는 독일 옹커 출신으로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논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뭇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의 어조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아렌트의 판단이었다. 요컨대 마르비츠는 민족의 원리가 인종 및 제국의 원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대립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8)</sup>

27) Cannistraro, “Mussolini’s Cultural Revolution,” p. 139.

28)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51, p. 170[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

확실히, 아렌트가 전체주의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념을 안이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는 제국주의와 민족국가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양자가 중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의 쇠퇴를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런 오류만으로도 그의 견해를 쉬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이스라엘 정치학자 아비네리(Shlomo Avineri)도 아렌트의 통찰이 “혁신적이고 탁월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의 부상을 민족국가의 쇠퇴로 이해했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역사적 오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sup>29)</sup> 그렇지만 아렌트의 주장을 실제 민족국가가 쇠퇴했다기보다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또는 제국주의가 서로 겹치거나 뭉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원리에 기초한 현상이고, 전체주의는 그 기원의 측면에서 민족주의보다는 인종주의나 제국주의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는 주장으로 읽는다면 어떨까? 그렇게 읽으면서 아렌트의 논리를 **방법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두 말할 필요 없이 파시즘과 민족주의의 관계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목적으로 말이다.

기실, 많은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은 민족주의적 이념과 수사에 집착했다. 그러나 이들의 민족주의는 역설적으로 민족주의를 **초과**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민족을 넘어 제국”을 가리켰다. 파시스트 언론인 펠리치(Camillo Pellizzi)는 1925년에 제국의 신화야말로 파시즘에 독창적인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민족이 아니라 제국이다”라고 선언했다. 그에게 이탈리아인들의 역사와 근대 세

이진우 · 박미애 역, 서울: 한길사, 2006, p. 337].

29) Shlomo Avineri, “Where Hannah Arendt Went Wrong,” *Haaretz*, Mar 3, 2010, <https://www.haaretz.com/2010-03-03/ty-article/where-hannah-arendt-went-wrong/0000017f-e174-d9aa-afff-f97c686d0000> [2023년 5월 23일 검색].

계의 삶에 걸맞은 것은 “민족들의 변증법이 아니라 민족들 위에 군림하는 제국들의 변증법”이었다. 제국의 길을 통해서만 “이기적이고 비루하며 사악한 민족들과 소민족들의” 협소한 지평을 극복할 수 있었다. 초티(Vincenzo Fani Ciotti) 백작도 파시즘을 민족주의의 “그 이상(con qualcosa in più)”으로, 그러니까 “라틴적 의식이 로마로부터 신성한 유산으로서 물려받은 보편성에 대한 염원”으로 규정했다. 요컨대 파시즘은 “새로운 이탈리아인과 제국의 역량을 갖춘 이탈리아인, 즉 귀족적 이탈리아인이라는 유형”을 추구하기 위한 “제국의 페다고지”나 다름없었다. 보타이(Giuseppe Bottai)와 같은 고위 파시스트 관료들도 1927년의 시점에 대외 정책은 곧 식민 정책이며, 식민 정책은 **제국의 신화**로 고양되어야 한다고 단언하면서 이를 새로운 문명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그에 따르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대한 개념이 우리의 살 중의 살이 될 필요가 있다.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무솔리니야말로 자신의 기질과 스타일에 따라 정치적이고 현실주의적이며 반수사학적인 이탈리아 팽창 정책의 개념에 완벽히 들어맞는다. [...] 최대한도로 그는 한 현대 역사가가 카부르를 가리켜 ‘현실적인 것의 역할(funzione del reale)’이라고 부른 것에 해당하는 제국 건설자의 역할을 갖고 있다.”<sup>30)</sup>

과연 그런 제국주의적 개념은 민족의 어휘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인종의 문법에 더 잘 어울릴 수 있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민족의 어휘는 인종의 문법에 어긋난다. 민족주의가 이론상으로 동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전제한다면, 인종주의는 불평등하고 위계적인 질서를 상정하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제국주의적 정복과 지배를 추구한 파시즘은 민족주의보다 인종주의로 더 잘 설명된

30) Emilio Gentile, *Storia del Fascismo*, Roma and Bari: Laterza, 2022, pp. 849-850. 인용문들 중 강조는 원문의 것.

다. 물론 이탈리아 파시즘이 독일 나치즘에 비해 인종주의적 요소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또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지적은 파시즘이 인종법(1938)을 시행하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등에 대한 식민 정책과 결합하여 인종주의적 개념과 실천을 전개한 사실을 경시한다. 파시스트들은 “아방가르드를 위한 인종주의의 교훈”을 설파하며 이탈리아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원주민들이 “문명의 권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우리들 중 누구도 파시스트 정부의 거대한 식민 활동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팽창은 “문명으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거대한 대륙과 조금도 인간적인 요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표상**들로 정당화되었다. “이 광대한 지역의 어둠은 가시지 않았다. 문명은 침투하지 못했고, 사람들과 금수들은 습속과 이익의 공유상태(*comunione*)에서 살아가는데, 백인종은 거기서 오직 원한과 교활함과 배신을 볼 뿐이다.”<sup>31)</sup>

독일 나치즘에 이르면, 인종주의는 한층 더 정교화되고 총체적으로 적용되어 의문의 여지없이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적 핵심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유대인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해체의 효소”라는 생각이야말로 히틀러의 일관된 가정으로서, 그의 모든 정책적 노력은 그런 해체를 되돌리는 데 바쳐졌다고 한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정치적 세균이고 히틀러는 “정치의 코흐(Robert Koch)”였다는 기이한 은유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히틀러의 근본 목표는 그런 인종주의적 개념에 근거하여 열등 인종들에 대한 아리안 인종의 지배를 위해 독일과 영국 사이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는 것이기도 했다.<sup>32)</sup> 이는 파시즘의 인종

31) Gentile, *Storia del Fascismo*, pp. 1026-1027.

32) François Delpla, “The Place of Antisemitism in the Goals of Nazism,” *Antisemitism Studies* 7-1, 2023, pp. 100-134.

주의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민족적 질서의 연속이기보다는 **부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나치 인종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전혀 없는 규모로 유럽의 인종주의적 정화에 기초한 원대한 유럽 지배의 전망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나치 체제 아래에서 ‘생활권(Lebensraum)’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클리셰였다. 그런 점에서 나치즘은 유럽 자신을 겨냥한 제국주의적·식민주의적 지배 프로젝트였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나치즘이 불러일으킨 특별한 분노, 즉 유럽인을 원주민으로 다룬 것에 대한 유럽인들의 공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런 공분은 원주민을 야만적으로 다룬 식민주의 일반에 대한 분노로 즉각 이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라베르소(Enzo Traverso)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나치즘의 홀로코스트는 서양 식민주의의 연장이었다. “우리는 식민주의적 학살이, **유럽 내부의 식민 전쟁**으로 파악된 1941-1945년의 정복 및 절멸 전쟁의 한가운데 침투해 있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19세기의 고전적 제국주의로부터 그 이데올로기들과 원칙들을 빌려온 식민 전쟁이었다.”<sup>33)</sup>

그렇다면 파시즘을 민족주의보다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의 맥락에서 인식하는 것이 파시즘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당연히, 이 말이 파시즘은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민족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가 파시즘을 더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요인이라는 말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국주의와 그 연장선상에서 전체주의적 충동을 지닌 파시스트 국가야말로 민족주의 자체를 변형한 일종의 **수동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민족주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제

33) Enzo Traverso, *The Origins of Nazi Violence*, New York and London: The New Press, 2003, p. 19. 강조는 인용자의 것.



국주의적·식민주의적 지배에 대항하는 저항과 투쟁의 이념과 실천으로서 정치적으로 재활성화될 터였다. 물론 그런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타오르는 열기에도 불구하고, 인도 출신 미국의 정치학자 차테르지(Partha Chatterjee)에 따르면,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완전한 주권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은 완전히 이행되지 못했다. 포스트식민 사회에서 주권적 민중의 전망은 1945년 이후 민족국가들의 세계에도 여전히 지속된 제국적 권력과 더불어 개혁이나 혁명을 대체한 국가의 포퓰리즘적인 수동 혁명을 통해 방해받았다는 것이다. 차테르지는 미국 시인 샌드버그(Carl Sandburg)의 “나는 민중이다”라는 시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한다. “100년 후에도 민중은 도래하지 않았다.”<sup>34)</sup>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인다면, 놀랍게도 니체(Friedrich Nietzsche) 역시 샌드버그의 것과 비슷한 구절을 1881년에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읊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와 민중의 혼동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라? 그것이 무엇인가? 자! 이제 내 말을 들어 보라. 그대들에게 민중들의 죽음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국가는 가장 냉혹한 괴물들 가운데서 가장 냉혹하다. 그 괴물은 차갑게 거짓말한다. 그 괴물의 입에서는 ‘나, 즉 국가는 민중이다’라는 거짓말이 기어 나온다.”<sup>35)</sup> 니체는 차테르지가 비판한 바, 수동 혁명을 통해 민중민족(people-nation)보다 먼저 도래한 민족국가(nation-state)의 허구성을 오래 전에 누설했던 것이다.

34) Partha Chatterjee, “Empires, Nations, Peoples: The Imperial Prerogative and Colonial Exceptions,” *Thesis Eleven* 139-1, 2017, p. 93; idem, *I am the People: Reflections on Popular Sovereignty Toda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0, pp. 73-86, 121-122.

35)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장희창 역 (서울: 민음사, 2004), p. 80. 번역서는 ‘people’을 ‘민족’으로 옮겼으나 여기서는 ‘민중’으로 바꾸었다. 또한 Sassoon, “Introduction,” p. xvii을 참조하라.

#### 4. 혁명, 전쟁, 대중

파시즘을 수동 혁명으로 파악한 이는 그람시였다. 차테르지는 그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 포스트식민 국가에도 적용했다. 그런데 수동 혁명으로서 파시즘의 이미지는 스스로를 혁명으로 표상한 파시스트들의 자기 인식과 짐짓 충돌하고 있다. 특히 파시즘의 역동적인 제국주의적 팽창을 고려할 때, 이를 수동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그 공격성과 급진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확실히, 제국주의에 대한 전통 해석에서 이른바 ‘사회제국주의(social imperialism)’ 이론은 제국주의가 혁명을 막기 위해 채택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즉 해외에서의 성공을 통해 국내의 계급투쟁을 예방하고 기성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제국주의 개념은 혁명을 회피하거나 적어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말한 수동 혁명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시즘의 제국주의는 사회제국주의의 한도를 넘어 더욱 강력하고 총체적인 정복과 지배를 추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파시즘을 단순히 수동 혁명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파시즘의 어떤 역동성을 간과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파시즘의 제국주의와 전쟁을 연구한 역사학자 녹스(MacGregor Knox)의 견해가 우리의 눈길을 끈다. 그에 따르면, 파시즘은 사회제국주의와는 정반대로 혁명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혁명을 만들기 위해 제국주의를 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팽창에 수반된 전쟁이 기성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변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전쟁은 **혁명의 대용물**이었던 셈이다. “전쟁은 목표이자 수단이었다. 바꿔 말해, 그것은 해외 정복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독일 사회의 야만화, 나아가 국내에서 파시즘의 길을 가로막는 교회와 장교 집단, 이탈리아 군주정 등 일체의

제도들을 궁극적으로 길들이거나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sup>36)</sup> 녹스에 따르면, 파시즘은 명백히 대중 정치 특유의 혁명적 충동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낡은 정치적·사회적 구조들과 타협해야 했다. 그런데 이런 타협으로 인한 혁명적 충동의 일시적 봉쇄는 “혁명을 완수하는(consummating the revolution)”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으니, 그 결과는 “특이하고도 끔찍했다”.<sup>37)</sup> 요컨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파시즘과 (특히) 나치즘의 혁명이 자기 파괴로 치닫는 허무주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연 파시즘을 사회제국주의의 대척점에 있다고 본 녹스의 관점은 파시스트 제국주의의 역동성과 그 한계, 즉 혁명을 전쟁으로 대체한 또 다른 방식의 수동 혁명을 동시에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파시즘의 전쟁 지향이나 전쟁 충동은 파시스트들의 혁명적 자기 이미지와 관련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는 란다(Ishay Landa)의 최근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제한적으로 하나의 쟁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파시즘이 급진적이라거나 혁명적이라는 이미지는 그것이 **대중**의 광범위한 동원과 조직을 통해, 즉 아래로부터 에너지를 모아 기성 제도와 사회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인상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런 인상을 전체주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아렌트인데, 그는 대중이야말로 전체주의 배후의 능동적 행위주체라고 주저 없이 판정했다. 현대 역사가들도 파시즘을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면서 파시스트들을 자신들의 말 그대로 다룬

36) MacGregor Knox, “Expansionist Zeal, Fighting Power, and Staying Power in the Italian and German Dictatorships,” *Fascist Italy and Nazi Germany: Comparisons and Contrasts*, ed. Richard Bessel,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114.

37) MacGregor Knox, *Common Destiny: Dictatorship, Foreign Policy, and War in Fascist Italy and Nazi Germany*,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4.

다는 놀테 식의 현상학적 방법을 취하며 파시즘의 혁명적 대중 정치로서의 특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방금 전에 인용한 녹스 역시 파시즘의 자기 인식을 충실히 재현하려고 하면서 파시즘을 “대중 정치 시대의 자식”으로 파악하고 파시즘의 혁명적 대중 정치가 국내 정치와 해외 정책, 혁명과 전쟁을 뒤섞었다고 보는 것이다.<sup>38)</sup> 그런데 란다의 연구는 파시스트들의 말 자체를 분석하면서도 앞서의 견해들과는 정반대의 논변을 입증해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란다는 최근 출간한 연구서에서 파시스트들이 그렇게도 자주 대중에 대한 적의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파시스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본다. 그의 눈에 비친 파시즘은 대중의 세력화가 아니라 대중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중이라는 야수를 길들이려는 시도였다. 파시즘은 정확히 니체가 말했던, 자기 보존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왜소화되고 균일화된 “말종 인간(letzte Mensch)” 또는 (란다가 말하는) “대중-인간(mass-man)”에 대항한 반란이었다.<sup>39)</sup> 요컨대 파시즘은 “1848년 혁명 이래로 상층계급 엘리트들과 이들의 중간계급 엘리트 동맹자들의 입장에서 대중 정치와 그 광범위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38) Knox, *Common Destiny*, p. 1.

39) Ishay Landa, *Fascism and the Masses: The Revolt against the Last Humans, 1848-1945*,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8, pp. 1-28. “말종 인간”에 대한 니체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말종 인간이다. [...] 그들은 가난해지지도 부유해지지도 못한다. 둘 다 너무 성가시기 때문이다. 아직도 다스리려 하는 자가 있는가? 아직도 순종하려 하는 자가 있는가? 이 둘 다 너무 성가시다. 돌보아줄 양치기는 없고 가축에만 있을 뿐! 모두가 평등을 원하고 모두가 평등하다. 자기가 특별히 다르다고 느끼는 자는 제 발로 정신 병원으로 가게 마련이다. [...] 그들은 낮의 쾌락도 밤의 쾌락도 조출하게 즐긴다. 그러면서도 건강은 알뜰하게 챙긴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다.’ 말종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깜박인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pp. 22-24.

함의들을 **가라앉히고**, 노동계급과 하층 신분들의 전진을 공히 차단하려는 노력의 정점”을 대표한다는 것이다.<sup>40)</sup> 이렇게 보면, 파시즘은 혁명적 대중 정치이기는커녕 외려 **“반대중 운동”**의 시도일 것이며, 란다가 보기에 “파시즘에 선수를 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화**를 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놓아 진정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대중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를 창출하는 것”이다.<sup>41)</sup>

이런 주장은 대중 소비주의의 폐해가 (특히 좌파 진영에서) 널리 비판되고 있는 현재에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잠시 소비주의에 대한 좌파 지식인들의 뿌리 깊은 경멸을 비판적으로 보는 란다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좌파의 공통된 정치적 목표는 소비 사회로부터의 해방인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란다는 좌파의 반소비주의적 태도가 아이러니하게도 극우파의 반소비주의와 통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 비판이론가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가 파시즘 이론가 에볼라(Julius Evola)와 유사해 보이

40) Landa, *Fascism and the Masses*, p. 2. 강조는 원문의 것. 란다는 파시즘의 반대중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재미있는 논리를 펼친다. 어떤 파시스트가 기성제도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면서 반노동자적 입장을 가진다고 해도, 그는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그가 아무리 하층계급 친화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더라도 그 진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파시스트에게는 자신의 **포퓰리즘**을 숨길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중을 경멸하는 척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될까? 어떤 파시스트가 노골적으로 반대중적 연사를 구사한다고 가정하자. 그가 자신의 내심을 그렇게 드러내서 얻을 정치적 이득은 적다. 또한 그렇게 대중에 대한 공격적 연사를 쏟아내더라도 통상 사람들은 자신을 ‘대중’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사가들로서는 파시스트가 드러낸 반대중적 연사를 대체로 그 표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파시스트에게는 자신의 **엘리트주의**를 숨길 충분한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동안 역사가들은 거꾸로 믿기 힘든 것을 믿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지 않아왔다(pp. 19-20).

41) Landa, *Fascism and the Masses*, pp. 21-22. 강조는 인용자의 것.

는 역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란다는 일찍이 마르크스 자신이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는 대중 소비의 성장과 수요의 “대중화”를 긍정적 발전으로 보았음을 상기시킨다.<sup>42)</sup> 아닌 게 아니라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Grundrisse)』에서 자본가의 이중적 입장, 즉 자신의 노동자들에게는 저축을 요구하지만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소비를 권유하는 이중성을 거론하면서 자본가는 소비를 진작하고 자신이 만든 상품에 매력을 부여하며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보여주는 이런 측면이 정확히 본질적인 **문명화 계기**이고, 자본의 역사적 정당성과 현재적 권력이 의존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대중 소비는 자본주의의 긍정적 국면이라는 것이다.<sup>43)</sup>

란다가 더 이상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르크스는 대중 소비주의가 자본주의의 문명화 계기라고 명시함으로써 거꾸로 비문명화 계기 또는 폭력적 계기도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했다. 우리는 그것이 전쟁이라고 능히 추론할 수 있다. 일찍이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도 『자본의 축적』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적 사회 환경에서 탄생하고 발전했다고 전제하면서 자본 축적을 위한 제국주의와 그 수단으로서 군국주의의 필연성을 주장했다는 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sup>44)</sup> 그렇다면 룩셈부르크가 말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비문명화 계기 또는

42) Ishay Landa, “The Left and the Masses: The Question of Consumerism,” *Marxist-Humanist Initiative*, July 31, 2013, <https://www.marxisthumanistinitiative.org/the-left-and-the-masses-the-question-of-consumerism> [2022년 11월 13일 검색].

43) Karl Marx, *Grundrisse*, tr. Martin Nicolaus, New York: Penguin Books, 1973, p. 287[칼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김호균 역, 서울: 백의, 2000, pp. 292-293]. 강조는 인용자의 것.

44) 로자 룩셈부르크, 『자본의 축적 II』, 황선길 역,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pp. 732-767. 또한 역자 해설을 참조하라(pp. 988-992).

폭력적 계기일 테고, 파시즘이 그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는 가설에 불과하지만 파시즘의 전쟁 지향이나 전쟁 충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일지 모른다. 또한 이 가설은 파시즘이 혁명을 통해 대중을 세력화하기보다는 혁명을 전쟁으로 대체하여 대중을 동원하는 **반대중적** 정치 이념이자 운동이었음을 함축한다.

확실히, 란다의 견해는 파격적이고 흥미롭지만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주장은 아니다. 외려 이단적 주장에 가깝다. 그의 주장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파시즘이 대중 정치라는, 흡사 성역과도 같이 취급된 상식과 통념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파시즘과 민족주의를 방법적으로 분리해 보듯이 파시즘과 대중의 결속을 험겁게 만들어 ‘발견적으로’ 파시즘의 새로운 성격을 드러내보려는 시도는 그 자체 생산적이리라 본다. 여기서 파시즘의 탈대중화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파시즘에 대한 정의의 문제로 되돌아가면 학계 안팎에서 통용되는 그리핀의 정의, 즉 파시즘이 혁명적 형태의 민족주의적 대중 정치라는 정의도 의문시될 수 있다. 물론 파시즘이 반대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해서 대중 정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에 대한 두려움이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대중에 호소하고 대중을 조직하며 대중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파시즘의 대중 정치가 혁명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에 대한 수동 혁명이라는 논점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는다.

## 5. 나오며: 파시즘을 둘러싼 오해와 부재에 대하여

이 글의 목적은 파시즘에 대한 대안적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

니었다. 또한 이 글에서 기성의 정의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다만, 일부 쟁점들만을 제한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종래의 정의가 드러낸 어떤 한계와 공백을 포착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 이 글에서는 자명해 보이는 것을 낯설게 만들어보려고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파시즘 연구에서 중요한 논점들을 짚어보고 새로운 시각들을 적용해보고 싶었다. 이에 덧붙여, 그런 시도를 통해 민족주의와 파시즘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나 존재하되 잘 드러나지는 않는 어떤 ‘오해’나 ‘부재’—물론 이 ‘오해’나 ‘부재’ 자체가 역사적 과정의 일부일 것이다—를 밝혀내어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는지 알고 싶었다.

먼저, 이 글에서는 파시즘이 민족주의라는 자명해 보이는 상식적 정의를 방법적으로 의문에 붙이고자 했다. 이런 의심과 회의는 민족주의에 대한 특정한 생각을 전제한다. 곧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파시즘과 화합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원리상 민족주의가 동등하고 민주적이며 혁명적이라면, 파시즘은 불평등하고 위계적이며 억압적이니 말이다. 물론 이런 원리적 대비는 지나치게 도식적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술체가 간명하게 정리했듯이, 원리가 아닌 역사적 현실에서 민족국가는 “혁명적”이거나 “제국주의적”이거나 “전체주의적”이었다.<sup>45)</sup> 특히 민족주의는 파시즘에 의해 동원되고 전유되었는데, 이는 민족주의 안의 파시스트적 잠재성을 말해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의 재담을 빌리면, 쇼펜하우어와 니체도 나치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나치가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이해하지 못했음—오인된 쇼펜하우어와 니체, 오해하는 나치—을 보여줄 따름이다.<sup>46)</sup> 민족주의와 파시즘

45) Schulze, *States, Nations and Nationalism*, p. vi.

46)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윌리스 반스톤, 『보르헤스의 말: 언어의 미로 속에서, 여든의 인터뷰』, 서창렬 역, 서울: 마음산책, 2015, p. 298.



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 파시즘은 민족주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오해**가 파시즘을 형성하고 민족주의를 변형시켰지만 말이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파시즘이 민족주의—역사적으로 변형되고 확장된—이더라도 여기에는 보충 설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마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 전쟁, 탈대중화 등이 종래의 정의를 강화하는 보강재들일 것이다. 다시, 이 대목에서 슬로베니아 철학자 지젝(Slavoj Žižek)의 농담을 꺼내볼 수 있다. 손님이 크림 없는 커피를 주문했을 때 크림이 떨어진 사실을 알리며 밀크 없는 커피도 괜찮겠냐고 묻는 웨이터의 도저한 정직함에 대한 농담이 그것이다.<sup>47)</sup> 크림 없는 커피나 밀크 없는 커피 모두 공히 블랙커피이지만, 지젝에 따르면, 양자는 그 부재—크림의 부재, 밀크의 부재—로 인해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민족주의 없는 파시즘과 제국주의 없는 파시즘(식민주의 없는 파시즘, 인종주의 없는 파시즘, 전쟁 없는 파시즘 등등)도 공히 같은 파시즘이겠지만, 이 모든 것은 그 **부재** 때문에 정확히 같은 것일 수 없다.

필경 이런 ‘오해’와 ‘부재’는 즉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나 ‘존재’와는 달리 오직 부정적으로만, 소극적으로만 드러난다. 그것도 도전적으로 상식과 통념을 깨고 파시즘이 민족주의와 다르다는 방법론적 가정을 의식적으로 도입함으로써만 비로소 드러난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레 보였던 화합과 연속에 내재하는 어색한 불화와 단절을 찾아낼 가능성이 나온다. 이 가능성을 십분 활용하여 잘 질서 잡힌 정의에 시비를 걸어 작은 소란을 일으켜볼 만하고, 그래서 소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전

47) 슬라보예 지젝, 『라캉 카페』, 조형준 역, 서울: 새물결, 2013, pp. 1348-1349.

보다는 조금이라도 진전된 정의를 마련해볼 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단상을 거칠게 말해보자면, 역사는 이음매 없이 매끈한 천은 아닐 것 같다. 그러기는커녕 뜯어지고 기워진 자국이 듬성듬성한, 접히고 주름진 천에 가까울 듯하다. 역사적 현상으로서 파시즘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우리는 파시즘에 대한 매끈한 정의를 바라지만, 파시즘의 역사는 그런 매끈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파시즘은 다소간 산만하고 난잡하게도 이런저런 단서와 규정을 붙여서만 그나마 간신히 이해될 수 있는 복잡한 역사적 현상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Gentile, Emilio, *Storia del Fascismo*, Roma and Bari: Laterza, 2022.  
 Griffin, Roger with Matthew Feldman, eds., *Fascism: Critical Concepts*, 5 vols., London: Routledge, 2004.  
 Griffin, Roger, *The Nature of Fascism*, New York: Routledge, 1991.  
 Hobsbawm, Eric, *On Nationalism*, ed. Donald Sassoon, London: Little, Brown, 2021.  
 Hobsbawm, Eric,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홍스봄, E. J.,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역,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2. 논문

- 장문석, 「민족주의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 대안일 수 있는가?: 두 가지 민족주의 옹호론에 대한 비평」, 『서양사론』 154, 2022.  
 장문석, 「안토니오 그람시와 파시즘의 은유들: 그람시의 파시즘 해석과 그 현

- 재적 함의, 『역사학보』 246, 2020.
- 장문석, 「트랜스내셔널 파시즘으로 가는 길목에서: 파시즘 비교 연구의 최근 동향」, 『서양사론』 145, 2020.
- Avineri, Shlomo, “Where Hannah Arendt Went Wrong,” *Haaretz*, Mar 3, 2010,  
<https://www.haaretz.com/2010-03-03/ty-article/where-hannah-arendt-went-wrong/0000017f-e174-d9aa-aff-f97c686d0000> [2023년 5월 23일 검색].
- Cannistraro, Philip V., “Mussolini’s Cultural Revolution: Fascist or Nationalist?”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7–3,4, 1972.
- Chatterjee, Partha, “Empires, Nations, Peoples: The Imperial Prerogative and Colonial Exceptions,” *Thesis Eleven* 139–1, 2017.
- Delpla, François, “The Place of Antisemitism in the Goals of Nazism,” *Antisemitism Studies* 7–1, 2023.
- Feldman, Matthew, “Editorial Introduction by Matthew Feldman,” Matthew Feldman, ed., *A Fascist Century: Essays by Roger Griffi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8.
- Gentile, Emilio, “Confronting Modernity: Italian Radical Nationalism in the 20th Century,” *Italian Americana* 15–1, 1997.
- Griffin, Roger, “Introduction,” *International Fascism: Theories, Causes and the New Consensus*, London: Arnold, 1998.
- Hobsbawm, Eric, “Defining Nationalism: The Problems,” idem, *On Nationalism*, ed. Donald Sassoon, London: Little, Brown, 2021.
- Knox, MacGregor, “Expansionist Zeal, Fighting Power, and Staying Power in the Italian and German Dictatorships,” *Fascist Italy and Nazi Germany: Comparisons and Contrasts*, ed. Richard Bessel,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Landa, Ishay, “The Left and the Masses: The Question of Consumerism,” *Marxist-Humanist Initiative*, July 31, 2013,  
<https://www.marxisthumanistinitiative.org/the-left-and-the-masses-the-question-of-consumerism> [2022년 11월 13일 검색].
- Sassoon, Donald, “Introduction,” Eric Hobsbawm, *On Nationalism*, London: Little, Brown, 2021.

### 3. 단행본

- 니체, 프리드리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장희창 역, 서울: 민음사, 2004.
- 룩셈부르크, 로자, 『자본의 축적 II』, 황선길 역,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 보르헤스, 호르헤 루이스·월리스 반스톤, 『보르헤스의 말: 언어의 미로 속에서, 여든의 인터뷰』, 서창렬 역, 서울: 마음산책, 2015.
- 장문석, 『민족주의 길들이기: 로마 몰락에서 유럽 통합까지 다시 쓰는 민족주의의 역사』, 지식의풍경, 2007.
- 지젝, 슬라보예, 『라캉 카페』, 조형준 역, 서울: 새물결, 2013.
- 핀카드, 테리, 『헤겔』, 전대호·태경섭 역, 서울: 길, 2015.
- 헤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정신현상학 1』, 김준수 역, 파주: 아카넷, 2022.
- 홉스봄, 에릭, 『자본의 시대』, 정도영 역, 서울: 한길사, 1998.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51[아렌트, 한나, 『전체주의의 기원 1』, 이진우·박미애 역, 서울: 한길사, 2006].
- Blinkhorn, Martin, *Fascism and the Right in Europe 1919–1945*,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0.
- Chatterjee, Partha, *I am the People: Reflections on Popular Sovereignty Toda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0.
- Hastings, Derek, *Nationalism in Modern Europe: Politics, Identity, and Belonging since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8.
- Kitchen, Martin, *Fascism*, Basingstoke: Macmillan, 1976[키친, 마아틴, 『파시즘』, 강명세 역, 서울: 이론과실천, 1988].
- Knox, MacGregor, *Common Destiny: Dictatorship, Foreign Policy, and War in Fascist Italy and Nazi Germany*,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Landa, Ishay, *Fascism and the Masses: The Revolt against the Last Humans, 1848–1945*,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8.
- Marx, Karl, *Grundrisse*, tr. Martin Nicolaus, New York: Penguin Books, 1973[맑스, 칼,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김호균 역, 서울: 백의,

2000].

Pinto, António Costa, ed., *Rethinking the Nature of Fascism: Comparative Perspectiv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1.

Pinto, António Costa, *The Nature of Fascism Revisit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Schulze, Hagen, *States, Nations and Nationalism: From the Middle Ages to the Present*, tr. William E. Yuill, Oxford: Blackwell, 1996.

Traverso, Enzo, *The Origins of Nazi Violence*, New York and London: The New Press, 2003.

Wimmer, Andreas, *Nation Building: Why Some Countries Come Together While Others Fall Apar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투고일: 2023. 8. 22 심사완료일: 2023. 9. 22 게재확정일: 2023. 9. 25)

장문석

소속: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전자우편: msjang@snu.ac.kr

[Abstract]

### Questioning the Definition of Generic Fascism

– Is Fascism A Form of Nationalism? –

Jang, Moon-Seok

This essay begins with a question of Griffin's widely known definition of generic fascism. This methodological doubt aims to find new ideas by intentionally challenging the old definition of fascism as a revolutionary form of nationalism based on mass politics. To this end, at first reviewing the nature of nationalism, this essay sheds light on the historical processes by which nationalism initially emerged as a radical and revolutionary ideology, and then was transformed into a mechanism of strengthening and justifying nation-state through the so-called Gramscian passive revolution, in particular, citing Hobsbawm's argumentation. Furthermore, it places emphasis on the fact that imperialism, colonialism and racism are relatively more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fascism than nationalism,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sufficiency of defining fascism as a form of nationalism. Finally, in order to avoid the risk of unwittingly overlooking the dynamics of fascism by understanding it as a kind of passive revolution, this essay discusses the relationships between fascism and revolution/war, and fascism and the masses, introducing recent studies. These topics are also main issues in fascist studies today, and delving into these issues from now on, we can more clearly grasp some limits and gaps revealed by the conventional definitions of generic fascism.

Key words: Italian Fascism, Generic Fascism, Nationalism, Passive Revolution, Imperialism, Colonialism, Racism, Revolution, War, Mass Politics